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룸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1)

몸을 인식함

성경: 롬 12:5, 고전 12:12, 엡 1:22-23, 2:16, 4:4, 12, 16, 5:30, 골 1:18, 24, 2:19

I. 몸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몸의 원수인 자아를 처리하고 버려야 한다 — 마 16:18, 21-26, 눅 9:23-25.

- A.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따라서 몸으로부터도 독립을 선언한 타락한 혼이다. 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곧 몸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것은 자아이다.
- B.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나병 환자의 털을 미는 것은 자아가 주는 어려움들을 처리하는 것을 상징하며, 삭도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 레 14:9.
1.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은 특정 영역에서 자랑거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육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덕들을,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자랑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과시할 만한 분야를 찾을 수 있다.
 2. 턱수염은 사람의 존귀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가문이나 심지어 영성에 관련하여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3. 눈썹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장점과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출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온몸의 털은 사람의 타고난 힘을 상징한다. 우리는 타고난 힘, 타고난 방법과 의견으로 가득하여,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5. 자아의 모든 방면이 십자가라는 ‘삭도’를 통해 처리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 비교 빌 3:7-11.
 6.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영에 의해 모든 일을 함으로써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한다.

II. 몸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몸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엡 1:17, 3:3-6.

- A.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분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셨다 — 행 9:3-5.

1.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지,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 — 행 9:4-5.
 2. 여기서 ‘나’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나’이다. 이것을 통해 사울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이 위대한 한 인격, 곧 놀라운 ‘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3. 주님은 사울에게, 그가 몸의 지체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머리를 박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셨다. 몸에게 범하는 모든 죄는 바로 머리에 범하는 것이다.
 4. 주님께서 자신을 사울에게 계시하셨던 그날이 바로 사울이 몸을 본 날이었다 — 롬 12:5, 고전 12:12, 엡 1:22-23, 2:16, 4:4, 12, 16, 5:30, 골 1:18, 24, 2:19.
- B. 그러한 높은 계시를 주신 이후에 주님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하셨고, 거기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행 9:6). 이것 또한 몸에 대한 계시였다.
1. 주님은 그분의 몸의 한 지체인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몸에게 위탁하셨다. 그리하여 사울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화 안으로 이끌리게 되었다.
 2. 이것은 틀림없이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며, 구원받은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을 것이다.
 3. 주님은 한 작은 제자를 보내시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였고, 그 제자는 “사울 형제님”(행 9:17)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통해 사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일하게 되었으며, 기름 바름 아래 있게 되었다.
- C.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면에서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면에서 그분은 그리스도 더하기 교회,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이시다 — 고전 12:12.
- D.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하고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만이 우리를 몸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오직 그럴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체험이 될 것이다.
- E. 일단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몸을 위해 살 것이며,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게 되며 자아 중심적인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 롬 12:5.
- F. 모든 것은 우리가 보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이 지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몸을 귀중히 여길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것이다 — 빌 2:3-4.
- G. 우리가 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참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 비교 요 1:49-51.

III. 몸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제한 아래 있어야 한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른 지체가 우리를 제한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 A.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몸의 모든 지체들의 위치를 정해 두셨다. 즉 머리께서 우리를 몸 안의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을 지적해 주신다 — 롬 12:4-5, 고전 12:15-21.
1.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고유의 위치를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에

- 의해 배치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 고전 12:19-22.
2. 모든 지체는 각각 명확한 위치, 명확한 배치, 특별한 몫이 있으며,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 각 지체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고유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각 지체의 위치나 직임이나 혹은 사역을 구성한다 — 롬 12:4-8.
- B. 몸이 자라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 요구 조건은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 엡 4:7, 16.
1. 우리는 우리의 분량에 기꺼이 제한받고자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자마자, 머리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고 기름 바름 아래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 롬 12:3, 6.
 2. 우리는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는 때 몸의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 냉철하지 못한 생각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폐하여 버리는 것이다 — 롬 12:3.
- C.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 고후 10:13.
1. 우리는 우리의 일이나 주님에 대한 체험이나 누림을 간증할 때 분량 안에서, 즉 어떤 한계 안에서 간증해야 한다.
 2. 비록 우리는 일이 확장되기를 기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제한 아래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제한 없이 뻗어나가는 확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 영에 따라 일을 확장한다면, 언제나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다 — 고후 10:13-15.
 - a.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확장하기를 계획하셨다는 인식을 갖는다. 내적으로 우리는 특정 수준을 넘어서 일을 확장할 때 평안을 갖지 못한다 — 비교 고후 2:12-14.
 - b. 외적으로 주님은 환경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어 일의 확장을 제한하실 수 있다. 그 환경은 우리가 특정한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 비교 롬 15:24.
 3.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만 분량을 정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 분량 이상의 것을 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 롬 12:3-4, 6상.
 4.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해야 한다 — 비교 엡 4:4, 스펀 4:6.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임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속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 지금 그분은 여전히 그분 자신을 표현할 ‘몸’이 필요하시다. 마치 사람에게 몸이 있어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은 귀나 눈이나 코나 어떤 부분적인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람 전체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개별적인 지체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다. 그분은 반드시 온몸을 얻어야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

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연장(延長)과 연속이다. 삼십여 년 동안 그리스도는 땅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시는데, 이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전에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오늘날에는 단체적으로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단체적인 그릇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그릇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일할 몇 명의 일꾼이나, 열심이 있는 몇 사람이나, 헌신한 몇 사람만을 선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도 교회이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한 지체만으로는 결코 행동할 수 없다. 한 손이나 한 발만을 사용한다면 온전하지 못하다. 또한 몸의 한 지체를 잃는다면 그것 역시 온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실재한다. 그러므로 교회생활도 실재한다. 성경은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인 것 같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몸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몸이 될 수 없다. 몸에 옷을 입힐 수 있지만 옷이 몸이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타고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골 3:11).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아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며, 사람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보아야 한다.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본다면, 당신은 두 번째 구원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담의 생명은 단독적이고 독립된 생명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가졌지만 서로 교통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개개인은 다 없어졌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알고자 한다면 죄를 범한 타고난 생명을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명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아야 한다. 모든 개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든 요소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체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지체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지체가 되는 것은 단체적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지체가 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다. 성경에는 많은 대조적인 말이 있다. 예를 들면, 깨끗함과 더러움,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 승리와 실패, 성령과 육체, 왕국과 세상, 그리스도와 사탄, 영광과 수치 등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대조적이다. 마찬가지로 '몸'은 '개인'과 대조적이다. 아버지와 세상이 대조되고 성령과 육체가 대조되며 주님과 마귀가 대조되듯이 몸은 개인과 대조된다. 사람이 일단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더 이상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하게 된

다. 우리가 구원받아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일종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만, 몸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적다. 그리스도의 몸은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체험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를 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났다. 그때 베드로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삼천 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그날 베드로 곁에 열한 명의 사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복음은 개인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전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개인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만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보는 것에 달려 있다. 자신이 지체임을 본 사람은 분명히 몸을 아낄 것이고, 다른 지체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좋은 점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것이다.

모든 지체마다 기능이 있으며 그들의 모든 기능은 다 몸을 위한 것이다. 한 지체의 기능이 온몸의 기능이고 한 지체가 한 일은 곧 온몸이 한 것이다. 입이 말을 하는 것은 곧 몸이 말하는 것이다. 손이 일을 하는 것은 곧 몸이 일을 하는 것이다. 발이 걷는 것은 곧 몸이 걷는 것이다. 지체와 몸은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몸에 있는 지체의 행동은 반드시 몸을 중심 삼아야 한다. 지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은 몸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아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체험할 만한 긴 시간과 큰 분량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지체로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나는 ○○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다(15절).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여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다(21절). 이 사람은 교만하여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경시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몸을 상하게 한다. 우리는 다른 지체를 모방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신이 대단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지체를 경시해서도 안 된다.

몸의 느낌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몸의 느낌을 갖기를 배워야 한다. 당신이 형제자매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과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떤 믿는 이는 나비와 같이 단독으로 행동한다. 어떤 믿는 이는 꿀벌과 같이 무리를 지어 살고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자신의 달콤한 길을 간다. 그러나 꿀벌은 벌집을 위해 일한다. 나비의 생활과 일은 모두가 단독적인 노선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꿀벌에게는 전체에 대한 느낌이 있다. 우리는 마땅히 꿀벌과 같이 몸의

느낌을 갖고 다른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살아야 한다. 몸의 계시가 있을 때 즉시 우리는 몸의 느낌을 갖게 된다. 몸의 느낌이 있을 때 즉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제거된다. 그리스도를 볼 때 즉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해방된다. 이와 같이 몸을 볼 때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에서 해방받게 된다. 몸을 보는 것과 개인주의에서 해방받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다. 일단 당신이 몸을 보게 되면, 당신 개인의 생활과 일은 멈추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태도나 행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계시를 따라 당신의 태도와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몸의 범위는 무엇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써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속에서 참되게 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스도의 비밀, 29-35쪽)*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몸 안에 있고, 몸을 통과한 것이며, 몸을 위한 것이다. 1925년에 스팅스 형제는 미국에 초청되어 한 자매를 만났다. 그녀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많은 공과를 배웠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참되게 생명의 사역을 가진,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배움은 몸 안에 있었고, 몸을 통과한 것이었으며, 또한 몸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표준은 몸 안에 있고, 몸을 통과하며 몸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에서 벗어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보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역으로써 그분의 몸을 섬길 수 있기를 구한다. *(그리스도의 비밀, 134쪽)*